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2016.6.26.(다해) 제2004호



프란치스코 교황

† 오늘의 전례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9,62)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 주일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옆길로 빠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황 주일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1독서 1열왕 19,16ㄴ,19-21

제2독서 갈라 5,1,13-18

복음 루카 9,51-62.

입당송 모든 민족들이여,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웁니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사람 냄새 나는 신부님, 어디 없어요?

김충남 실베리오 신부 | 한국성모의 자애수녀회 담당

새소리도 물소리도 맑고 깨끗한 산자락이라서 그런지 가끔씩 길 잃은 고라니가 얼굴을 내밀다가 제 생긴 모습이 자기와 다른지 바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에 웃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좀 더 멈춰 있으면 맛있는 것도 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더위가 한창인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지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시나요? 그 고생을 말할 수 있고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누군가를 만나셨는지요? 신자들은 그 누군가를,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사람 냄새 나는 신부님’을 오늘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신부님의 모습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더욱이 신부님의 그림자를 밟아도 안 된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제가 처음으로 신부님과 꽤 오랜 대화를 나눈 것은 고등학생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신학교에 뜻을 두고 있다 보니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우들이 신부님을 가까이서 쫓다 보면, 신부님께서 사목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돈과 자리, 업적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알아도 신부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교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교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자신들의 고생을 말할 수 있고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신부님,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신부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위 ‘사람 냄새 나는 신부님’을 찾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분은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알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라라.”라고 하시며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예”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람 냄새 나는 신부님, 어디 없어요?” **필문**

학교 밖 아이들

꿈을 심는 ‘꿈 못자리’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대안교육담당

과거의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일로 느껴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만큼 무서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도 그럴까요? 이곳의 아이들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집안 사정이나 사고, 비행 등으로 학교를 원치 않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으면 망설임 없이 그만둡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학교가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학교가 싫으니 당장 그만둔다!” 과거에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요.

‘니트(NEET)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t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라는 말의 약자로 아무런 교육이나 취직, 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일명 ‘갱겨루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만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일췌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역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 가운데 거의 70~80%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놀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경민(가명)이라는 아이도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라던가 계획 같은 것은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나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합니다.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도 없이, 지금의 삶에 대해 별 어려움 없이 만족하며 지내는 아이입니다. “왜요?”, “몰라요.”, “싫어요!”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집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는 상담사들에게는 내담자로서 적당한 유형이겠지요. 하지만 이 아이에겐 ‘상담 모드’라는 것이 있어서 상담을 받게 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필문**

학교 밖 청소년·학교 부적응 학생 관련

문의: 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53)643-7624

후원: 대구은행, 505-10-178097-9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꿈못자리)



아카펠라

사람의 목소리만큼 훌륭한 악기가 있을까? 울림이 좋은 성당에 가면 무반주로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소리가 마치 천상의 소리를 방불케 합니다. 악기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화음을 맞추어 부르는 노래, 또는 그렇게 부르는 방법을 ‘아카펠라’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 교회에서 대개 반주 없이 합창을 했던 데에서 유래된 아카펠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a)’는 이탈리아어의 ‘알라(alla)’와 같은 의미로 ‘~풍으로’, ‘카펠라(capella)’는 ‘경당’ 즉, ‘경당 풍으로’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하는 교회음악에 무반주 합창곡이 작곡되고 불리게 된 것은 경당이라는 장소적 제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기 소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목소리만을 취해 하느님께 대한 찬미를 더욱 순수하고 경건하게 하려 했던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펠라라는 개념이 무조건 악기 반주를 뺀 합창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732년 요한 고트프리트 발터가 펴낸 음악사전에는 아카펠라의 뜻이 “성악 및 기악 성부가

동시에 같은 음을 연주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1851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브로크하우스 백과사전에서는 “옛 교회음악에서, 성악부가 기악반주 없이 연주되거나 기악부가 성악부와 똑같은 선율과 리듬으로 반주하는 것”을 아카펠라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만 발터의 음악사전은 한 가지 예외를 설명하는데 바티칸 시스티나성당에서 교황 미사곡을 연주할 때는 파이프 오르간이나 다른 어떤 악기도 사용하지 말고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카펠라가 무반주 합창의 처음은 아닙니다. 그 명칭이 나타난 것이 16세기경이었다는 것이지,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이나 종교음악의 형태로 존재해 왔었습니다. 19세기부터는 합창이 대중화되고 전문 성악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합창단을 아카펠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의미에 오해가 생겨 교회음악이 아니더라도 악기 반주가 없는 합창곡은 모두 아카펠라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영역 또한 확장되었습니다. 대중음악 분야의 아카펠라는 20세기 초부터 다양한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오늘날 대중음악의 아카펠라는 더 이상 합창의 개념이 아니고 대개 4~6명으로 구성된 앙상블의 중창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는 최고의 악기,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들려주는 작은 오케스트라 아카펠라. 지상의 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악기가 바로 사람의 목소리임을 증명해주는 음악이라 할 것입니다. **필문**



아카펠라그룹 킹스싱어즈

햇볕 한 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

추신수 선수가 뛰고 있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강타자, 한 때 최고의 유망주로 극찬 받던 야구선수 조시 해밀턴. 그는 2002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술과 마약에 빠져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굳은 의지로 재활을 한 끝에 아메리칸리그 엠브이피(MVP)와 타격왕을 차지하고 메이저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2011년 7월 7일, 난생 처음 아빠와 함께 야구장을 찾은 6살 쿠퍼 스톤이라는 아이는 이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조시 해밀턴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인 아빠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의 생일 선물로 멋지게 야구 공을 잡아 주기 위해 좌익수인 조시 해밀턴에게 공을 잡으면 꼭 자기에게 던져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회 말 파울볼을 잡은 해밀턴은 부탁을 잊지 않고 아이 아빠에게 공을 던졌지만 조금 짧게 날아갔고, 어떻게든 공을 잡으려던 아빠는 그만 중심을 잃고 6미터 난간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라고 크게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아빠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구급차 안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공을 던진 조시 해밀턴 또한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죄책감으로 일주일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80일이 지나 2011년 아메리칸리그 플레이오프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 시구를 위해 등장한 이는 얼마 전 아빠를 잃고 슬퍼하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80일 만에 경기장에 나타난 쿠퍼에게 5만 여 관중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쿠퍼는 아빠와 함께 야구장에서 입었던 해밀턴의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쿠퍼의 공을 받으려고 등장한 선수는 쿠퍼의 아빠에게 공을 건넸던 해밀턴이었습니다. 쿠퍼가 힘차게 던진 공을 받은 해밀턴은 쿠퍼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며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를 눈앞에서 지켜봤던 아이가 마운드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쿠퍼의 상처를 달래준 마운드 위의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텍사스 구단은 홈구장 출입구에 아빠와 아들의 동상을 제작하여 아버지 새넌 스톤을 영원히 기리기로 했습니다. **▶▶▶**



교구 행사

■ 김도율 신부 미술 작품전 개막식



김도율(요셉) 신부 미술 작품전 “즐거운 비상”의 개막식이 6월 14일(화) 오후 6시 대백프라자 12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 카자흐스탄 알마티교구 후원금 전달식



내당성당(주임 : 박강희 안드레아 신부)에서는 6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본당설립 5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알마티교구 후원금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에게 전달하였다.

■ 월배성당 견진성사



월배성당 신자 120명의 견진성사가 6월 19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 제7회 여기에인상 시상식



사단법인 한국여기회(총재 :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주최로 열린 제7회 여기에인상 독후감 공모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6월 19일(일) 오후 2시 앞산 밀 북카페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 월간 <빛>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여

기간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장소 :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희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 053-250-3011



미 사 안 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27일(월) 19:00 성의여자고등학교 경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7월 2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미사	6월 27일(월) 11:00 수성성당		

성소 | 피정

7월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7.2(토) 15:00~18:00
 장소: 남대영기념관(현충로역)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형제
 문의: 이마리오 신부, (010)7507-600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7.3(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성소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에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상: 해외선교사제 지원자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7.19(화)~20(수)
 시니어 피정: 7.26(화)~27(수)
 장소: 효령 하늘집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7.2(토) 10:00
 일정: 10:00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찬양미사(안수), 면담 고해성사
 장소: 영남대역 4번 출구(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7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7.9(토)~10(일)
 주제: 외딴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토) 신부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평화계곡피정의집 향심기도 피정

기간: 1차 7.8(금)~10(일) 2박 3일
 2차 7.13(수)~15(금) 2박 3일
 대상: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누구나 / 선착순 각 20명
 문의: (010)5332-7587

교육 | 모집 | 기타

빛떼제 기도

일시: 7.9(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286-2247

5차원전면학습교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45차 8.1(월)~3(수)
 장소: 구미 선산청소년수련관

대상: 초·중·고·대학생(선착순 30명)
 참가비: 28만원 / 다음카페: 유아청 참조
 문의: (010)3883-7004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4기 원우 모집

개강: 9.26(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대구가톨릭대병원 검진센터 이전 오픈

새롭게 단장한 종합검진센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실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치: 암센터·장기이식센터 5층
 문의: 650-411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명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주)김스여행

스페인(산티아고) 5일도보/루르드 14일

- 출발일: 10월17일 ~ 10월30일
- 지도신부님 동행합니다.

☎ 1544-4655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 · 덴마크 · 독일 보청기

서문점

김은연 세실리아
☎053)257-8588

동인점

최준우 미카엘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결혼명가

노블코리아

중신 잘하는 집!

미팅취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옥순(요나단) 영주(젬마)
 동대구역 신세계 부띠끄2111 드라마트 10층 14호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참소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환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Yi Sang Doe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이상도
 (프란치스코)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미소나라

misonari

출장뷔페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행사 | 모임

박영봉(안드레아)신부 아생화사진 초대전
 기간: 7.6(수)~19(화),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CU갤러리(매일빌딩 1층)
 목적: 사제서품 25주년 기념 및 산격성당 교육관건립기금 마련
 문의: 산격성당, 943-9030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6.30(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삼덕성당

교육 | 모집

대구평신도(2016, 통권 29호) 원고 모집
 답게 살겠습니다: 신앙운동 실천 후기 자유기고문: 신앙체현, 시, 수필, 단상 등
 마감: 9.30(금) / 제출: 교구 사목국, dgsamok@daum.net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채택료를 드립니다.

소람상담소 재능기부 상담 전문가 모집
 봉사: 토요일, 주일
 자격: 해당분야 석사·2급 수련 이상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소서
 제출: kim-sinbu@hanmail.net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_꿈트리 모집
 대상: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감정고시 지원, 진로탐색
 위치: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문의: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10)9177-6858 / www.cumtree.or.kr

계산 열린 특강
 일시: 7.2(토) 17:00, 계산성당
 주제: 끝없는 의문_헌법과 인간
 강사: 정중섭의원 / 문의: 254-2300

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토) 14:00~18:00
 장소: 가톨릭문화관 / (010)3817-5255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대구ME주말_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2차 ME주말: 7.8(금) 19:00~10(일)
 343차 ME주말: 7.29(금) 19:00~31(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법, 가곡교실, 성가반주법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수도원 뒤)
 문의: (010)9100-4114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2017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1차: 7.16(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2차: 10.15(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나성훈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소화유치원(고령성당 부설) 교사 채용
 모집: 6세반 담임교사
 자격: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유자
 유치원 소지 기숙사(아파트) 제공
 문의: (010)9910-3721

대구평화방송(FM 93.1) 7월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현해 들려주는 우리본당 이야기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7월 2일 죽도본당	7월 9일 만촌1동본당	7월 16일 성토마스본당	7월 23일 내당본당	7월 30일 대동본당
------------	--------------	---------------	-------------	-------------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대성익스프레스 지열, 태양광 시스템)
 LED 조명, 전력·조명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에너지 절약 컨설팅 RECS
 Renewable Energy Consulting Solution
 T. 053)573-0205 (손 시카엘)
 위치: 대구테크노파크벤처기업센터 (* 대리점 모집, 일 배우실 분 환영)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세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16년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오톤
 최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흉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